붉은귀 거북·큰 입 배스 등
"야생동물 방생 마세요"

광주시 "생태계 교란"

"붉은귀 거북 등 야생동물을 방생하지 마세요."

광주시는 5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야생동물의 방생을 자제해 줄 것을 불교신자 등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황소개구리·붉은귀 거북·큰 입 배스·블루길 등 외래종과 떡붕어·미꾸라지·이스라엘 잉어 등이 하천·호소 등에서 토종 어류를 잡아 먹는 등 생태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붉은귀 거북과 큰입배스는 토종물고기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육식성이어서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동물로 꼽힌다. 최근 방생용으로 많이 쓰이는 미꾸라지도 대부분 중국산으로 환경이 맞지 않아 대부분 폐사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붉은귀 거북은 지난 2003년 광주시 조사에서 ▲광산구 쌍암공원 연못 76마리 ▲서구 상무시민공원 연못 15마리 ▲서구 동남아파트 뒤 광주천 수중보 2마리 등 3곳에서 모두 93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 야생 동물을 방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아내 잡은' 남편 과욕
실뱀장어 많이 잡게 하려고
다른 어선 신고했다 되레 덜미

영산호 방조제 앞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0대 여성이 남편의 과욕(?) 때문에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3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0시30분께 목포시 영산호 방조제 앞 1.6㎞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뜰채를 싣고 실뱀장어 잡이에 나선 최모(여·49)씨를 수산자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 해역에서 다른 5~6척의 선박과 불법 조업을 하다 남편 홍모(50)씨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에 붙잡혔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가 조업하려는 곳에 큰 배들이 불법조업하고 있어 이를 쫓아버리려고 신고한 것인데, 큰 배들은 모두 달아나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아내만 재수 없게 걸렸다"고 후회했다.

전남 연안의 실뱀장어잡이 어민들은 700여명으로 매년 1~4월 3~4㎝ 크기의 실뱀장어를 잡아 중간상인을 거쳐 마리당 300~800원씩에 육상 양만장에 팔고 있으나, 10t 미만의 배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전국의 실뱀장어 시장은 연간 500억~600억원 규모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어린이 날' '부처님 오신 날' 함께 맞는 해남 은적사 동자승

놀이공원 대신 새벽 예불
절집 마당서 '소림 축구'

동자승의 예불 시간. 왼쪽부터 태영·숭산·동환. /해남=위직량기자 jrwi@

부처님 오신 날(5일)을 맞는 절집은 부산하다. 일주문 밖까지 울긋 불긋 연등(燃燈)이 내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보살들의 손길은 쉴 틈이 없다.

이런 '야단법석'의 와중에, 동자승(童子僧) 셋이 절집 마당을 그라운드 삼아 축구공을 차느라 정신이 없다.

해남군 마산면 장촌리 금강산 중턱에 자리한 대한불교 조계종 은적사(隱寂寺)의 지난 1일 오후 풍경이다.

이들 동자승 셋은 IMF를 겪으면서 갈 곳을 잃었다가, 이 곳 주지 삼각(三覺) 스님의 보살핌을 받게 됐다. 동환·숭산·태영 스님이 이들이다.

동환이 열셋, 숭산은 열하나, 막내 태영은 열 살로 십리 밖 해남 마산초등학교에 다닌다.

숭산은 때마침 부처님 오신날과 겹치는 '어린이 날' 선물로 새 운동화를 건네받고 '신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며 귀밑까지 입이 찢어진다. 동환과 태영은 축구공을 서로 뺏으려고 절집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어린이 마음 속에 천진불(天眞佛)이 계시고, 한마음 한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아님이 없으니, 날마다 만나는 이웃이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종정 법전(法專) 스님의 불기255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어를 소개하는 삼각 스님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걸린다.

삼각과 아이들의 연(緣)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모 사찰에 '큰 스님이 되게 해 달라'는 쪽지만 남긴 채 한 아이가 맡겨졌고, 스님은 당시 4살이었던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 삼각은 '산처럼 높은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숭산'(崇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4년 뒤 동환과 태영 차례로 새 식구가 됐다.

천수경 등 웬만한 법문 '줄줄'
"아버지처럼 큰 스님 될래요"

■ ■ ■ ■ ■

새 운동화 선물 받고 싱글벙글
"한 달에 한번 고기 맛도 봐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아이들은 본격적인 승려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스님과 함께 법문을 외웠다. 목탁 치는 법, 종 내리는 법 등도 꾸준히 연습했다. 그러기를 3년. 이제는 천수경(千手經), 반야심경(般若心經) 등 웬만한 법문은 줄줄 왼다. 한 시간이 넘게 법당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도 익숙해졌다.

아무리 동자승이라도 아이들이라는 생각에, 삼각은 한달에 한두번 해남 읍내로 데리고 가 고기 근이라도 먹이고 매주 3천원씩 용돈도 챙겨준다. 승복도 예불시간에만 입게 한다.

"생 떼를 부리거나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운 적도 없어요. 중 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잘 합니다."

그도 동자승들에게서 '부처님'을 본 것일까.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고맙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동환은 '가수', 태영은 '의사'가 꿈이다. 숭산은 "아버지(동자승들은 삼각 스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닮은 큰 스님이 되고 싶다"며 '용맹정진'이다.

하지만 삼각은 걱정이 앞선다. 승가고시를 통과하고도 10여년이 넘게 세상 밖의 세상에서 진리를 탐구해야 하고, 이후로도 자신을 바쳐 중생을 구제해야 하는 험난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동진출가(童眞出家 : 어린 나이에 중이 됨)한 아이들에게 스님은 엄격한 스승이면서, '아버지'이기도 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나원참 〈6820〉 김종두

술 착각 농약 마시고 숨져

3일 오전 8시께 장흥군 관산읍 김모(40)씨가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김씨의 형(52)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방 안에서 1.8ℓ 소주병 3~4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해 농약병을 술병으로 착각해 마신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수협직원과 짜고 면세유 250억 불법 사용

여수해경, 김 가공업자 등 58명 적발

수협직원들과 짜고 250억원대의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김 가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은 3일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김 가공공장주인 송모(60·고흥군)씨 등 50명과 한모(51)씨 등 고흥수협 직원 8명 등 58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송씨 등 김·미역 가공업자 50명은 지난 2003년부터 수협 직원들과 짜고 가공만 하면서도 직접 김을 양식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면세 경유 11만5천 드럼(시가 253억원 상당)을 공급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 고흥수협 직원 8명은 김·미역 가공업자들이 물김을 양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어업권 행사계약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면세 유류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협직원과 가공업자들 사이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면세유 불법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김·미역 가공업자들은 수협 물김 중매인들로 그동안 어민들이 생산해온 물김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폭락을 조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로 인해 물김을 생산하고 있는 어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재산 안 나눠준다" 어머니 폭행

쌍나팔

○…광주 서부경찰은 3일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존속상해)로 서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어머니(57)가 이를 말리자 "동생에게만 아파트를 사줬다"며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

○…서씨는 또 어머니의 얼굴에 술을 뿌린 뒤 "이불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서민정기자 viola@

경 제2회 녹차 마라톤 대회 축

●주 최 : 보성군 광주일보사 ●주 관 : 전국 마라톤협회

보성군청 직원일동 보성어산병원 임 경 집무원
원 전라남도지사 김태호 삼호피혁제단법인삼호
보성군체육회 직원일동 (주)대원기술단 대 표 서동진
보성경찰서 서 장 백승주 기아자동차서비스보성점 대 표 구재옥
보성교육청 교육장 백성식 보성새우정미협나라 대 표 배상수
보성문화원 원 장 정형철 보성푸주관광 대 표 박두주
보성군농업축산과 과장 이수영 보성농협녹차지점 지 점 김재홍
보성군산림조합 조합장 주형태 보성읍양신협 전무이사
보성읍농협 조합장 문병한 G S 건설(주) 소 장 임재석
보성군축협 조합장 김병수 (주)동아원보성 대 표 배정웅
보성군청 공무원일동